



# “최첨단 과학방역시스템 갖춘 국제도시 실현”

### 도-카이스트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협약 각종 감염병 대비 가능한 방역 상비체계 구축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은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제주도와 카이스트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형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 방역 상비체계 구축,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도민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코로나 뿐 아니라 어떤 감염병에도 버틸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방역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앞선 카이스트의 과학방역을 기반으로

이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카이스트의 협력체계를 통한 정정 제주의 미래가치를 구체화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2000조 원이 넘는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신 총장은 또한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개방형 드론탑지 레이더 등 제주도와 카이스트의 다양한 협력을 소개하며 “오늘 협약을 통해 바이오·의료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정정 제주’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 왼쪽)와 신성철 KAIST 총장이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방역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편 카이스트는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의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동형 음압병동(MCM)’을 개발하고 작년 12월 28일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음압병동 외에도 ▷초

고속 진단 검사 시스템 ▷빅 데이터와 AI를 통한 확진자 동선 및 파급경로 조기 분석 시스템 ▷자가 격리용 개인방호 키트 ▷항바이러스 생분해성 재사용 마스크, 의료진 보호장구 등을 개발하고 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에너지 바우처 서둘러 사용하세요”

4월 30일 사용 기한 종료

2000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사용 기한이 4월 30일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서둘러 이용권을 사용해달라고 9일 당부했다.

도는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8000원, 2인 가구는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이사 등으로 주소 등이 바뀐 지원 대상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에 따라 1로 4억6300만원의 난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했다.

이상민기자



환경변화에 따라 분포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한라산 구상나무. 사진=국립산림과학원 제공

## 한라산 토종미생물로 구상나무 살린다

### 국립산림과학원, 토종 균근균 한라산서 발견 1년생 묘목 접종결과 생존율 1.5배 향상 확인

한라산에서 발견된 토종 ‘균근균’을 구상나무 어린나무에 접종한 결과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멸종 위기에 놓인 구상나무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주)브레인트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제주도 한라산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한 토종 ‘균근균(Oidiodendron maius)’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분리·배양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과학원 측은 이 균근균을 구상나무 1년생 묘목에 접종한 결과 생존율이 평균 97%로 나타나 접종하지 않았을 때(67%)보다 1.5배 가량 높았다.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수종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으로 위기종(Endangered, EN)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생장이 느리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숲을 이루는데

긴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구상나무는 나무가 어린 단계에서 생존율이 낮아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1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한 구상나무는 2019년 산림청 실태조사에서도 유전자원 보존과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으로 선정됐다. 최근 환경변화로 인해 구상나무 대규모 분포지(500ha 이상)인 지리산, 한라산의 구상나무 분포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도 약 33%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호인 박사는 “균근균을 활용한 생존율 증진 결과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상나무 숲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하루 7000보 걸으세요”

도, 2월 참여자 모집·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하루 7000보 걷기사업’을 추진한다.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6개 지역 보건소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개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도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온택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일상 속 걷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도민의 걷기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참여대상자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WalkON)’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어 거주지 관할지역 보건소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자기 혼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조정되나

###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 17개 지자체에 권고 국토부, TF 꾸려 개선방안 착수 6~7월 최종안 확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소비자 부담 경감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6~7월중 수수료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료도 동반 상승

해 복비 갈등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권익위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4가지 방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방식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때 국민중개사와 일반국민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3안과 4안은 각각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별로 다른데 제주도는 매매의 경우 5개 구간별로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가 적용된다.

권익위는 또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소득수준과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 면제나 감경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과 권익위의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이달 말부터 구성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교통·환경 국가 중점 데이터 민간에 개방

제주특별자치도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교통·환경 융합 정보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IoT 기술로 차량 운행 도중 수집되는 정보를 원천데이터를 구축한 뒤 이를 가공해 주기적으로 공공 데이터포털(https://www.data.go

.kr/)에 개방한다. 특히 대중교통 신호연계 정보, 미세먼지 센서 수집정보 등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형태로 제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기자

**2021년 화북동 해신제 봉행 취소 안내**

2021. 2. 16.(화)(음 1. 5.)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어·안전조업을 기원하기 위해 해신사에서 봉행 예정이던 해신제(海神祭)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 북 동 주 민 센 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방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